

## '하나'의 역사학에서 '여럿'의 역사학으로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 펴낸 김기봉씨

우리의 역사인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E. H. 카의 모더니즘 역사이론이다. 역사학자 김기봉씨는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담론을 빌려 과학성과 진보성의 모더니즘 담론을 넘어설 것을 제안한다. 그가 지향하는 역사학은 민중의 대항역사를 복원하는 '삶으로서의 역사'다.

1960년대에 대학시절을 보낸 사람과 2000년에 재학중인 대학생에게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아마 십중팔구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답할 것이다. 영국 역사학자 E. H. 카(Carr)가 1960년 BBC방송에서 내린 역사에 대한 정의가 40년이 지나도록 ‘금과 옥조’로 받아들여지는 셈이다.

“이는 대단히 한국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던 8년 동안 역사학자들 사이에 단 한번도 카를 언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카의 역사담론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대학의 역사개론 강의교재는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입니다.”

### 모더니즘 역사학의 맹점

독일 빌레펠트대에서 사학사를 공부하고 돌아온 김기봉씨(41, 성균관대 강사)는 이제 카의 역사인식을 ‘역사화’해야 할 때가 됐다고 믿는다. 40년의 시차에도 여전히 카의 역사관을 답습하는 것은 ‘현재와 과거의 대화’가 아니라 ‘과거와 과거의 대화’일 뿐이기 때문이다.

“카의 역사이론은 두가지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역사는 하나의 과학이고 역사는 진보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더니즘 역사학의 토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카의 역사관이 여전히 숭배되는 것은 역사의 진보에 대한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김씨는 최근 펴낸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푸른역사)에서 모더니즘 역사학과 포스트모더니즘 역사학을 대결시켜 새로운 역사담론을

구성한다. 그가 보기에 카의 모더니즘 역사학의 맹점은 역사적 상상력과 역사서술의 문학적 특성을 간과한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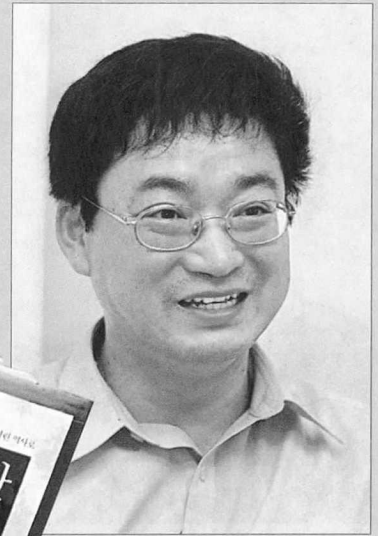
“카는 현재주의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주체는 현재의 역사가일 뿐 과거인들은 발언할 기회가 없습니다. 또한 역사가가 시도하는 과거와의 대화는 상상적일 뿐입니다. 따라서 현재주의는 역사적 상상력의 빈곤을 초래합니다.”

‘언어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역사학은 역사를 하나의 ‘담론적 질서’로 상정한다. 다시 말해 과거를 역사로 만드는 것은 역사를 쓰는 역사가의 이야기 형식이다. 김씨는 역사의 형식적 측면을 재발견한 것과 상징적 문화현상으로 연구영역을 확대시킨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역사학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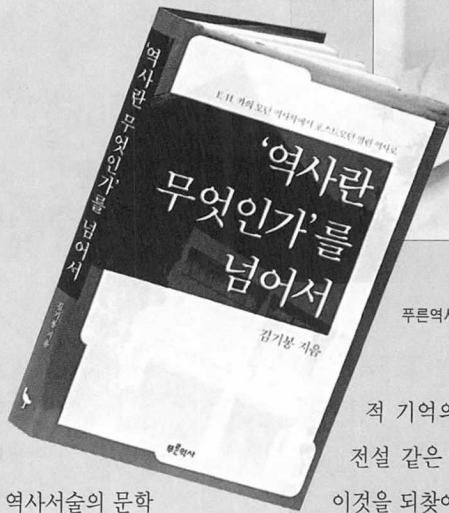
“모더니즘은 한마디로 거대담론입니다. 역사에 하나의 답이 있다고 상정하고 이를 찾으려고 합니다. 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하나’의 역사가 아니라 ‘복수’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이성, 계몽 같은 중심들을 해체하고 그 틈새를 넓히려는 전략이죠.”

### 민중의 대항역사 재구성해야

포스트모더니즘 역사학으로 모더니즘 역사학을 해체한 김씨는 ‘언어로의 전환’에서 ‘문화로의 전환’을, ‘과학으로서의 역사’에서 ‘삶으로서의 역사’를 제안한다. 모더니즘 역사학이 민중의 집단



김기봉씨



푸른역사/A5변형/358면/15,000원

적 기억의 형태로 전해 내려온 설화나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제외시켰다면, 이제 이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중의 역원이 담긴 신화나 전설은 공식적인 기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과학으로서의 역사는 민중의 삶으로서의 역사를 은폐해온 거죠. 하지만 민중의 집단적 기억을 역사화하는 구술사 등의 방식으로 민중의 대항역사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하는 거죠.”

김씨의 글쓰기 방식은 끊임없이 묻고 답하기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신과도 통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하나의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던짐으로써 중심을 해체하고 차이를 생성하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묻는다. 역사란 무엇인가?

“카의 어법을 빌린다면, 역사란 과거의 문화와 현재의 문화 사이의 대화입니다. 문화를 매개로 현재와 과거가 열린 대화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의 역사에 대한 정의는 하나의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의 시작일 뿐입니다. 다시 역사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김씨의 꿈은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능가하는 역사학 입문서를 집필하는 것이다. 우리 역사의식에 맞는, 우리가 묻는 《역사란 무엇인가?》를 쓰기 위해 그는 니체의 명제를 나침반으로 삼는다. “역사가는 생의 문제를 고뇌하기 위해 역사를 이야기해야 한다.” — 박천홍 기자